

등급란을 통한 위생적인 계란 공급



제주도 양계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연광근 지회장

40% 계란 생산 과잉 여전

채란업의 경우 과거에 비해 농가수가 줄어들었지만 규모화가 이루어지면서 생산은 여전히 과잉 생산을 면치 못하고 있다. 따라서 1일 생산되는 52만개의 계란중 40%의 과잉되는 계란을 육지로 판매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제주도는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지회(조합)에서 모든 난가를 조율하고 있으며, 상인들도 이에 순응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지회 직원이 일주일에 2차례 각 매장들을

20만 가구에 인구 56만 여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제주도는 국제적인 관광휴양지로 유동인구에 따라 소비시장이 움직이고 있다. 제주도 양계인들은 청정지역을 배경으로 고유의 브랜드를 개발, 위생적이고 안전한 양계산물을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제주지회 연광근 지회장을 만나 최근의 제주도 양계산업 현황과 지회운영방안에 대해서 들어보았다.

제주도는 총 65농가가 양계업을 하고 있으며, 그중 산란계는 35농가에서 80여 만수가 사육되어지고 있고, 육계는 30농가에서 약 60여 만수의 닭들이 사육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돌면서 판매가격과 유통 흐름을 파악하고 있으며, 육지에서의 가격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참작하여 시세를 조절한다.

최근에는 방송을 통해 계란의 우수성에 대한 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소비가 늘어나면서 계속적인 난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닭고기 50% 육지로부터 공급

육계의 경우는 계란과 상황이 다르다. 제주도에



북제주군 조천읍에 위치한 대한양계협회 제주지회(제주한라양계영농조합법인)

서 생산되는 모든 닭들은 제주가금처리장(제주시 화북동 소재)에서 일괄 처리하고 있는데 HACCP 인증을 받은 이후 소비자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닭고기가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1일 평균 8~9천수의 공급물량으로서는 공급이 부족해 소비량의 50%는 육지로부터 수입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제주도만의 청정지역 닭고기 브랜드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에서 추진하는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환경개선제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계란등급제 실시로 소비확대

연광근 지회장은 매월 한번씩 이사회를 개최하여 지회(조합)의 운영은 물론 회원들의 권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가고 있으며, 도청 직원들과도

2~3개월에 한번씩 간담회를 개최하여 양계분야 지원사업 등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

제주도는 계란소비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제주도의 적극적인 협조로 학교, 관공서, 군부대 등에 계란 하나 더 먹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제주도 일간지 등을 통해 지속적인 계란우수성 홍보 광고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몇 년 전부터 준비해오고 있는 계란등급제 사업이 오는 5월부터 실시를 앞두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도와 교육청의 협조를 얻어 친환경 급식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우선 금년에는 29개 학교에 급식을 담당하게 되며, 내년에는 도내의 200여개 학교에 급식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또한 감귤을 이용한 고유브랜드란 개발도 진행 중에 있어 소비확대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

연광근 지회장은 제주도 양계산업은 섬이라는 이점에 따라 한울타리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만큼 양계인들의 단합이 잘 이루어질 경우 유통문제 등 제반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지역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농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부 회원들이 협조를 기피할 경우 모든 양계인들이 불이익을 당할 소지도 함께 가지고 있는 단점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회원들의 단합과 이익에 초점을 맞추어 협회운영을 해나갈 뜻을 밝혔다.(취재 | 김동진 홍보팀장 dj@poultry.or.kr) **양계**



지회 살림꾼인 강승협 상무